



내어쓸 줄 아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

각화사 주지
혜담 스님



혜담 스님은 ...

1949년 울산 출생. 범어사에서 광덕 스님을 은사로 득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승가학과 졸업. 해군군종법사 대위로 전역. 일본 불교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수로. 선우도량 공동대표,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과 재심회계위원 역임. 지금은 검단산 각화사 주지이며 재단법회 대각회 이사. 역·저서로는 <반야경의 신앙> <반야불교신행론> <대품 마하반야바라밀경> <방거사어록강설>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셔라>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 등 다수 있다.

검단산 깊은 골에 자리 잡은 각화사는 신선이 사는 곳이다. 소나무와 굴참나무들이 울울창창하여 빛살이 쉬이 내려앉을 수 없을 정도로 그늘져 있다. 이런 곳에 절이 있거나 할런지 의구심을 품고 몇 구비를 돌고 돌았다. 저 멀리 단청을 입힌 당우가 얼핏 눈을 스친다.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골이 깊어서 바람과 구름이나 쉬었다 가는 이곳에 바람을 내려 놓은 스님의 마음을 헤아려본다. 아마도 견성하고자 말겠다는 분심 하나로 이곳에 터를 잡았을 것만 같다.

각화사에 들어서면 바깥소식은 귀들 밖 소식으로 들릴 것 같다. 혜담 스님의 거처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가슴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먼저 자리를 차고앉은 푸른 소나무와 구름과 산들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생각이 부질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통유리를 통해 보이는 풍광은 더욱 선명해 보였다. 산 너머의 산 그리고 또 산 너머의 산이 겹겹이 두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산 너머의 그곳에 가 닿고 싶은 유혹을 불러일으킨다.

혜담 스님은 선방 수좌이면서 학문연구에도 열정을 바치는 분이다. 불광법회를 만들고 불자들의 문

‘마하반야바라밀’ 그 자리를 보는데 40년 걸려 광덕 스님 “불자의 수행은 기도와 함께 시작된다”

사수(聞思修)교육에 열과 성을 바친 은사 광덕 스님을 가까이서 모셨다. 스승의 사상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하반야바라밀’을 이어받았다. 스승은 영민한 혜담 스님을 상좌로 도반으로 생각하였고 많이 아꼈다. 광덕 스님은 반야바라밀을 “일체 허망을 깨뜨리고 진실만이 온전히 드러난 궁극적 진실이며, 영원히 변치않는 궁극적 실체이며, 실상생명”이라 했다. 혜담 스님은 ‘마하반야바라밀’ 연구에 일본으로 건너가 3년 동안 경상 앞에서 밤을 낮 삼아 공부하였다. 그 공부를 이어 방대한 <대품 마하반야바라밀경>을 번역하기도 했다.

불교와의 연이러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도덕교과서에 실린 설산동자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사람은 나도 언젠가는 죽고 꽃은 피어도 곧 진다/ 이것은 생명 있는 것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답십선생님께 묻고 싶었지만 어린 마음에 선생님도 틀림없이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다. 이 문구를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출가를 하고 보니 그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 스님은 전생에 아뢰야식 속에 남아있던 그것이 큰 의문으로 작용한 것이라 여겼다. 고등학교 때 불교학생회 활동을 했었고, 그때 불교신문도 받아보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남짓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대로 출가해버렸다. 출가하고 보니 속가에서의 이런저런 인연들이 출가를 위한 디딤돌로 작용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국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 날 결망을 메고 칠불암 선방으로 갔다. 졸업식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바람 같이 쐩 하고 칠불암을 찾았으니 선수행에 대해 얼

마나 몰라라했는지 알 수 있다. 화두를 참구한지 40여 년이 되니 구멍 난 좌복을 몇 개나 버렸는지 모를 일이다. ‘마하반야바라밀’ 그 자리를 보는데 출가하고 40년이 걸렸다면 스님은 자신의 공부를 뒤돌아보는 것으로 법문을 열었다.

“수좌들 중에는 ‘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을 화두로 들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무문관> 제1칙에 이미 ‘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에 대해 ‘있다 없다’를 떠난 세계라고 답을 해놓았어요. 화두는 의심인데, 이미 알고 있는 화두를 잡고 있으니 공부가 되는지 의심스러워요.”

화두란 의심이다. 온 몸이 전제로 그 문제와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상태가 의심이다. 의심이란 간절하게 생겨야 하는 것인데 억지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불교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의 거침없는 말씀은 오랜 세월 치열하게 자신의 공부를 챙기고 점검한 데서 나온 것이기에 진실하다. 좌복에 구멍이 나도록 수십 년 간 화두를 참구하다가 그만 뇌혈관이 터져버린 일이 있었다. 이때 전의 일이다. 선각이 화두가 터져야 할 일인데 뇌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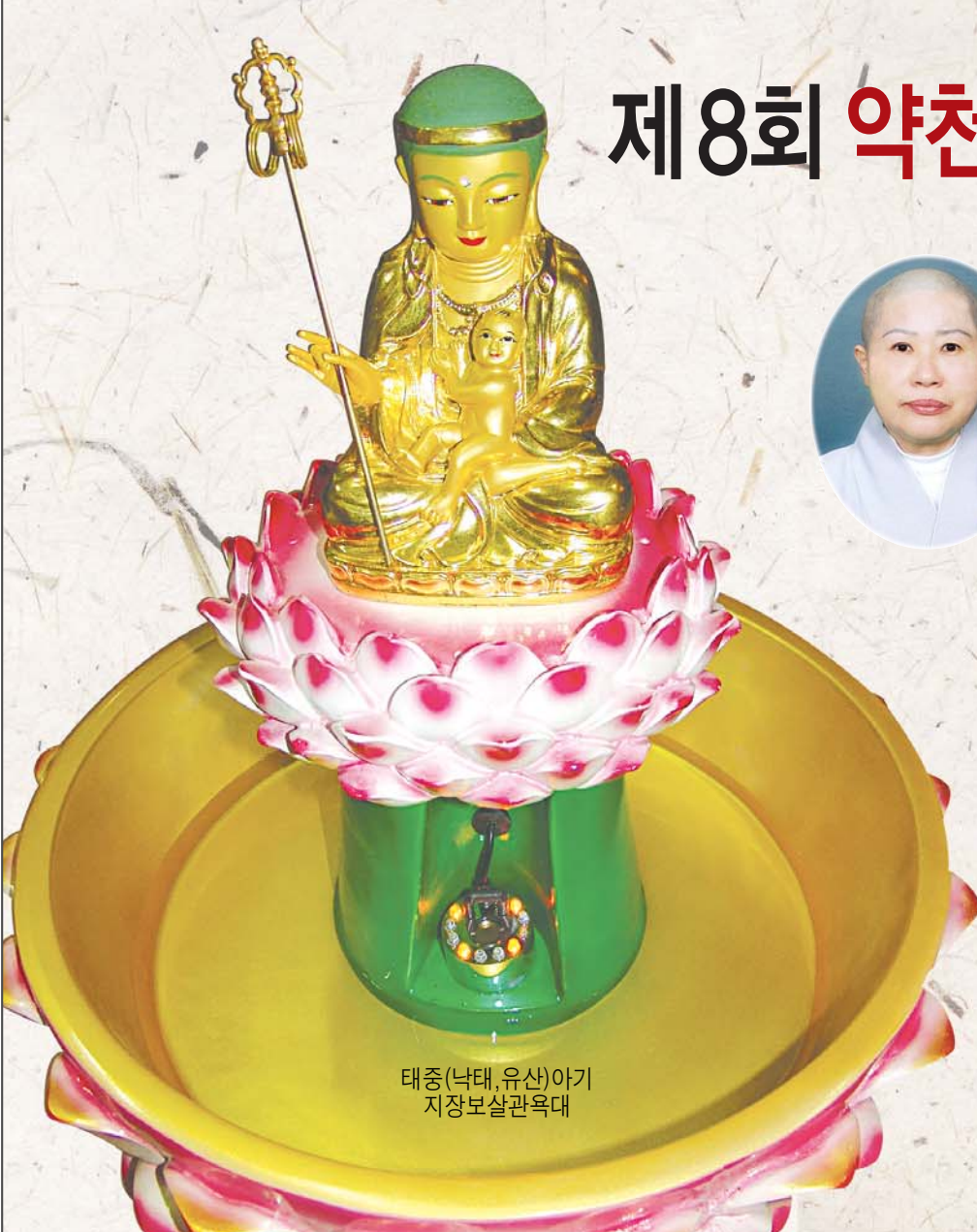
관이 터져버렸으니 입담하고 난감한 것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마음을 관하기 위해 머리를 너무 혹사시켜 버렸으니 자신의 공부에 문제점이 있음을 절감한 사건이기도 하다.

본래가 공이고 ‘마하반야바라밀’인데, 머리는 어디에 있으며 터질 머리는 또 어디 있는가? 자신의 공부를 돌아보았다. 광덕 스님의 ‘마하반야바라밀’ 법문을 다시 들여보았다. 출가하고서부터 공을 깨닫기 위해 화두에 매달렸을 뿐, 기도에 대해 그다지 달갑지 않게 생각해 온 터이다. 그런데 “불자의 수행은 기도와 함께 시작된다”는 은사스님의 그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광덕 스님의 법문 중 ‘마하반야바라밀’에 관한 법문만을 뽑아서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라는 책을 내었다.

“마하반야바라밀에 관한 법문을 책으로 엮는 5-6개월 동안 ‘마하반야바라밀’ 화두가 절로 들리더니, 어느 날 마하반야바라밀 그 자리가 보이네요. 조사 스님들이 ‘견성하라’고 ‘마음을 보아라’고 왜 그렇게 절실하게 당부했는지도 알겠더군요.”

마음자리를 보았더니 허공처럼 생겼더라. 허공은 지구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듯이 우리 마음도

제8회 약천사 태(胎)중 아기(낙태·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태중(낙태, 유산)아기
지장보살관육대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로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고,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육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10년 10월 10일 일요일 오전 10시 (음, 9월 3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10월 10일 (음, 9월 3일)
 - 3재 : 양력 10월 24일 (음, 9월 17일)
 - 5재 : 양력 11월 7일 (음, 10월 2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1월 21일 (음, 10월 16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당일 천도재는 별도상담)
 - ※ 위패비, 아기웃 (무료)
- 존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 7개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육을 합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 2) 49재를 올려서 천도에 주어야 합니다.
-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 4) 지장보살상을 사들 시는게 좋습니다.
- 5) 부처님을 조상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붙입니다.
-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 천도재 준비관계로 미리 접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약천사 방생법회 : 2010년 11월 28일 (음, 10월 23일)